

#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 :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의 매개적 역할

###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도현심\*\*  
연구교수 신나나  
연구교수 김민정  
시간강사 박보경  
석사 나지혜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Doh, Hyun-Sim

Research Professor : Shin, Nana

Research Professor : Kim, Min-Jung

Lecturer : Park, Bo-Kyung

Master : Na, Ji-Hye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A total of 702 mothers with 3-year-olds(353 boys and 349 girls) and the children's teachers, all of whom reside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Socioeconomic status was measured by maternal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Maternal abuse and neglect were assessed by asking mothers to complete the Parent-to-Child Vers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 Both mothers and teachers completed the 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 in order to evaluate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socioeconomic status and maternal abuse and neglec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socioeconomic status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related to aggression. Furthermo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suggesting the need for interventions focusing on improving positive parenting and decreasing negative parenting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

---

▲주요어(Key Words) :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status),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maternal abuse and neglect), 유아의 사회적 행동(preschoolers' social behavior), 유아의 친사회성(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유아의 공격성(preschoolers' aggression)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0-C00001).

\*\* 주저자 · 교신저자 : 도현심(E-mail : simdoh@ewha.ac.kr)

## I. 서론

친사회성과 공격성은 유아기와 학령기의 긍정적·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대표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Crick, Casas, & Mosher, 1997; Doh et al., 2005). 친사회성은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고, 사회·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는 데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적응, 학업성취 및 또래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Eisenberg & Mussen, 1989; Chen et al., 2002). 반면 공격성은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서(Olson & Hoza, 1993; Meehan, Hughes, & Cavell, 2003),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보고되어 왔다(Walker et al., 1986). 이처럼 아동의 친사회성이나 공격성과 같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형태의 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이후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예방적 측면에서 특히 생후 초기 어린 연령에 속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은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 환경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자녀관계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Kim, & Kim, 2010).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주장하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높은 반면(Park, 2002; Yoo & Kim, 2007),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유아들은 일반 유아에 비해 사회적 적응능력이 낮고,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부족하며(Lee, 2006), 정서·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적응 문제를 많이 보였다(Duncan & Brooks-Gunn, 2000).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정의 빈곤 정도나 소득수준을 측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유아의 발달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왔다(이숙영·홍신아, 2003; Duncan & Brooks-Gunn, 2000).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수준이 높은 가정의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고(Lee & Han, 2003), 더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이며, 또래에게 더 잘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Chung, Kwon, & Lee, 2009). 반면, 빈곤한 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학습장애를 겪거나 정서 및 행동상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경험하였다(Duncan & Brooks-Gunn, 2000).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한 유아들은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Shaw, Winslow, & Flanagan, 2003),

이러한 행동은 특히 유아기 동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enan & Wakschlag,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아(Olweus, 1980; Chung et al., 2009), 양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의해 측정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친사회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유아는 많은 사회적 행동방식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배우게 되고,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주로 부모의 온정이나 애정, 반응성, 거부, 강압, 학대, 허용, 방임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발달적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Park, 2002; Son & Rhee, 2004; Doh et al.,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가 온정적, 반응적, 자율지향적 양육행동과 같이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친사회성이 높은 반면, 부모가 강압적, 통제적, 학대적, 방임적 양육행동과 같이 부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학대나 폭력은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습득하고, 이를 행동으로 나타낼 기회를 제공하므로(Noh & Park, 1992),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연구자들은 주로 이러한 부모 행동을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Marly et al., 2001; Stouthamer-Loeber et al., 2001; Naughton et al., 2011). 다시 말하면,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어, 양자 간의 관계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성, 사회적 위축, 정서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에서의 애착형성의 문제, 감정입능력 부족 등의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인지기능이나 학습 면에서의 문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won, 1991). 부모로부터 신체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소극적이고 사교성이 낮았고(Yoo & Kim, 2007), 낮은 자아존중감과 발달적 지연을 보였으며(Erickson & Egeland, 2002),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일반 아동에 비해 대인 문제 해결력이 낮고,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Haskett, 1990; Chung, 2008). 특히,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행동을 보이기 쉬우며, 일반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Marly et al., 2001; Stouthamer-Loeber et al., 2001).

또한,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은 분노나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을 보이며 또래관계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방임을 경험한 아동 역시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며 공격적, 파괴적인 성향을 보였다(Shin & Choi, 2003). 이와 같이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힌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성과 같은 긍정적 행동 수준을 낮추고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행동 수준을 높이리라 예측하게 한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학대 및 방임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으로서 부모의 교육수준을 측정된 연구들(Lee, 1996; Choi & Woo, 2002; Park, 200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대나 방임이 많이 발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경우, 전문대나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어머니들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들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나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를 더 많이 나타내었다(Goo, 2011).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Kim, 2002)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특히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다 최근의 연구(Kim, 2006)에서도 밝혀졌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대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Yoo, 2006)도 보고되고 있어, 양자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더불어 가족의 빈곤이나 소득수준이 어머니의 학대나 방임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빈곤이나 낮은 소득수준이 학대나 방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Gelles, 1992; 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빈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한 연구(이숙영·홍신아, 2003)에서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부모는 특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비행을 방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소득의 결핍으로 인해 가정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험을 빈곤으로 측정하거나 가정의 월수입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계산되는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가 1미만인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하였을 때, 가정의 빈곤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Kim, 2006; Kim & Kim, 2008; Yeo, 2010), 특히 가족의 소득수준과 신체적 학대 간의 관련성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밀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6). 그러나 가정의 월수입을 몇 개의 집단으로 범주화시켜 신체적 및 정

서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Ha & Park, 2002; Kim, 2002; Goo, 2011)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나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드물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등 세 변인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할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문 편이나, 몇몇 국외 연구들에서 그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onger et al.(1994)은 가정의 경제적인 압력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안하였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의 취업여부나 교육수준, 직업, 수입 등을 기초로 측정된 사회적으로 불리한 특성(social disadvantage)과 학령기 아동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처벌적 혹은 방임적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하였다(Knutson, DeGarmo, & Reid, 2004).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비행 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에 초점을 둔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하였다.

한편, 사회적 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보고자에 따라 지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을 여러 평가자가 측정함으로써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Knutson et al., 2004). 유아의 경우 자기보고가 어려우므로 유아를 가까이서 돌보는 어머니가 유아의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서 유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머니와 달리, 교사는 여러 유아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유아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인 친사회성과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보고와 교사보고를 모두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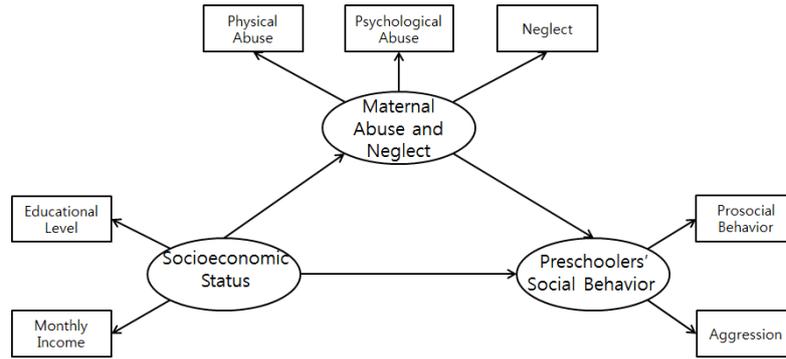


Figure 1. Linking Socioeconomic Status to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수준이 유아의 친사회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을 통해 친사회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참조).

<연구문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38곳 어린이집에 다니는 702명의 만 3세 유아(평균: 44개월, 표준편차: 3.38)로서, 그들의 어머니와 47명의 교사가 응답에 참여하였다. 영유아기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생후 초기에 속하는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0.3%(353명), 여아가 49.7%(349명)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61.4%(431명), 둘째가 33.3%(234명), 셋째 이상이 4.6%(32명)이었다.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7.18세(표준편차: 3.81)이고,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87세(표준편차: 3.54)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8.4%(34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24.9%(175명)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49.3%(34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21.8%(153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42.6%(299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8.2%(128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16.7%(117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40.3%

(283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6.8%(188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1.5%(81명)이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비롯하여,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어머니에 의해,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보고되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제외한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을 조사하였다. 이는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은 열악한 심리적, 물리적 환경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Belsky et al., 2007)에 근거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1점(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2점(중학교 중퇴 및 졸업), 3점(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4점(전문대 졸업 또는 중퇴), 5점(대학교 졸업) 및 6점(대학원 이상)의 Likert 식으로 측정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월 총수입 액수로 측정되었다. 연구대상 가정의 월수입 범위는 100~3,000만원이었다(평균: 523.85만원, 표준편차: 297.57). 참고로, 이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100~250만원 미만은 82명, 250~500만원 미만은 271명, 500~750만원 미만은 231명, 750~1,000만원 미만은 61명, 1,000만원 이상은 57명이었다.

## 2)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Straus et al.(1998)의 학대/방임 척도인 Parent-to-Child vers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CTSPC)를 번역 및 역번역(backtranslation)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비폭력적 훈육(nonviolent discipline)(4문항), 심리적 공격성(psychological aggression)(5문항),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13문항), 방임(neglect)(5문항) 등 27 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행과 관련한 3문항('목 주위를 잡고 숨이 막히게 했다.', '고의로 화상을 입혔거나 고의로 야단쳤다.', '칼로 위협했다.')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일반집단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심각성의 정도가 지나쳐 어머니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자 비폭력적 훈육 요인을 제외하였다. 원 척도의 경우, 심리적 공격성 및 신체적 폭행 요인은 6점 척도로, 방임 요인은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수월성을 위해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원 척도의 용어인 '심리적 공격성(psychological aggression)'이나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본 척도의 심리적 공격성과 신체적 폭행을 각각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로 정의하는 선행 연구들(Hong, 2010; Jo, 2012)에 근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관련한 3가지 하위요인인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5문항),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10문항), 그리고 방임(neglect)(5문항) 등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심리적 학대의 경우,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악담을 퍼붓는다.', '아이에게 멀리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하거나 집밖으로 쫓아낸다.' 등이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 '아이를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세계 찬다.', '아이의 손이나 팔, 다리를 찰싹 때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의 경우,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때, 그렇게 해 주지 못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챙겨주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요인과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62, .82와 .63, 그리고 .85이었다.

## 3) 유아의 사회적 행동 척도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Crick et al.(1997)의 교사용 유아기 사회적 행동 척도인 PSBS-T(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Teacher Form)를 어머니용과 교사용으로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SBS-T는 외현화 공격성(6문항), 관계적 공격성(6문항), 친사회적 행동(4문항), 우울(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 우울 요인을 제외하였다. 여러 명의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교사보고점수는 각 교사별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의 친사회성과 부정적 측면의 공격성을 포함하였다. 공격성의 경우,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가 어머니보고는 .58( $p < .001$ ), 교사보고는 .62( $p < .001$ )로 다소 높은 편에 속해, 두 요인을 합산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친사회성 요인에는 '다른 아이들을 잘 돕는다.', '다른 아이들에게 대해 좋게 말하거나 착한 일을 한다.' 등의 문항들이, 공격성 요인에는 '다른 아이들을 꼬집어서 상처를 낸다.',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면, 그 아이를 놀이집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유아의 친사회성과 공격성의 Cronbach's  $\alpha$ 의 경우, 어머니 보고는 각각 .89와 .88, 교사보고는 각각 .94와 .86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12월에서 2011년 5월에 걸쳐 서울시에 위치한 38곳 어린이집 기관장의 동의하에 실시되었다. 해당 기관장과 교사들에게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유아 편에 배부·회수되었고 교사용 질문지는 교사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1~2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배부된 946부의 질문지가운데 794부가 회수되었으며(84%의 회수율),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23부)와 가정의 월 총수입이 기록되지 않은 질문지(69부)를 제외하고, 총 702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차이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t$ -test,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chi^2$ 와 함께 적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되었다.  $\chi^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내용이 쉽게 기각되며 표집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적합도 가운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NFI(Normed Fit Index)를 함께 제시하였다(Browne & Cudeck, 1993; Marsh & Hau, 1996; Hong, 2000).

### III. 연구결과

#### 1. 예비분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제외한 연구변인, 즉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이 유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유무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 $t = 2.45, p < .05$ ), 어머니( $t = 3.68, p < .001$ )와 교사( $t = 2.62, p < .01$ )에 의해 보고된 공격성, 어머니( $t = -2.62, p < .01$ )에 의해 보고된 친사회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아는 여아에 비해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받았으며, 어머니와 교사 모두에 의해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반해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1> 참조).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 $F = 16.53, p < .001$ )와 심리적 학대( $F = 14.42,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둘째와 셋째 이상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첫째인 경우 둘째와 셋째 이상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를 더 낮게 보고하였다(<Table 1> 참조).

이외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유무는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예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차와 출생순위를 통제된 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2> 참조).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 $r = -.21, p < .001$ ), 심리적 학대( $r = -.17, p < .001$ ) 및 방임( $r = -.10, p < .01$ )과는 부적으로,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의 친사회성( $r = .10, p < .01$ )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또 다른 지표인 가정의 월 총수입은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 $r = -.09, p < .05$ ) 및 심리적 학대( $r = -.09, p < .05$ )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방임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어머니( $r = .11, p < .01$ )와 교사( $r = .09, p < .05$ )가 보고한 유아의 친사회성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포함되는 두 변인 모두 유아의 공격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친사회성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자녀의 친사회성 및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어머니(신체적 학대:  $r = -.17, p < .001$ , 심리적 학대:  $r = -.13, p < .01$ , 방임:  $r = -.12, p < .01$ )와 교사(신체적 학대:  $r = -.14, p < .001$ , 심리적 학대:  $r = -.12, p < .01$ , 방임:  $r = -.11, p < .01$ )가 보고한 유아의 친사회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에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유아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Table 1. Effects of Gender and Birth Order on Maternal Abuse and Neglect, and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N=702)

	Gender		<i>t</i>	Birth order			<i>F</i>
	Boys (N=353)	Girls (N=349)		First-born (N=431)	Second-born (N=234)	Third-or-later-born (N=32)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Physical abuse	1.40(.37)	1.33(.30)	2.45*	1.26(.30)	1.39(.35)	1.44(.38)	16.53***
Psychological abuse	1.61(.44)	1.59(.39)	.74	1.48(.41)	1.65(.37)	1.66(.43)	14.42***
Neglect	1.19(.28)	1.19(.27)	-.11	1.18(.26)	1.20(.28)	1.19(.28)	.27
Prosocial behavior(M)	2.98(.47)	3.08(.52)	-2.62**	3.07(.48)	3.01(.45)	3.01(.55)	1.22
Prosocial behavior(T)	-.03(.78)	.08(.78)	-1.80	-.01(.79)	.03(.79)	.27(.05)	.35
Aggression(M)	1.32(.36)	1.22(.30)	3.68***	1.24(.31)	1.27(.30)	1.30(.37)	2.03
Aggression(T)	.07(.72)	-.07(.08)	2.62**	-.03(.71)	-.00(.69)	.03(.70)	.48

Note. M = mother report; T = teacher report.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2. Intercorrelations among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Abuse and Neglect, and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N=702)

	1	2	3	4	5	6	7	8	9
1. Maternal educational level	-								
2. Monthly household income	.35***	-							
3. Physical abuse	-.21***	-.09*	-						
4. Psychological abuse	-.17***	-.09*	.67***	-					
5. Neglect	-.10**	-.04	.35***	.30***	-				
6. Prosocial behavior(M)	.10**	.11**	-.17***	-.13**	-.12**	-			
7. Prosocial behavior(T)	.02	.09*	-.14***	-.12**	-.11**	.19***	-		
8. Aggression(M)	-.03	-.03	.34***	.27***	.29***	-.21***	-.20***	-	
9. Aggression(T)	-.06	-.05	.20***	.16***	.06	-.05	-.48***	.21***	-
Mean	4.67	523.85	1.37	1.60	1.19	3.03	.02	1.27	-.00
SD	.91	297.57	.35	.42	.27	.50	.79	.33	.70

Note. M = mother report; T = teacher report.

\* $p < .05$ , \*\* $p < .01$ , \*\*\* $p < .001$

되었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유아는 공격적인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신체적 학대:  $r = .34, p < .001$ , 심리적 학대:  $r = .27, p < .001$ , 방임:  $r = .29, p < .001$ )와 교사(신체적 학대:  $r = .20, p < .001$ , 심리적 학대:  $r = .16, p < .001$ )에 의해 보고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경제적 수준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공격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유아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의 매개적 효과를 살펴본 구조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3. 구조모형 분석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예비분석에서 확인된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 두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독립변인인 사회경제적 수준과 종속변인인 친사회성만을 포함한 첫 번째 모형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아의 친사회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 = .30, p < .05$ ).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5.21(df = 8)$ ,  $\chi^2/df = 1.90$ , CFI = .95, NFI = .90, TLI = .87, RMSEA = .04(90% 신뢰도 = .00, .06)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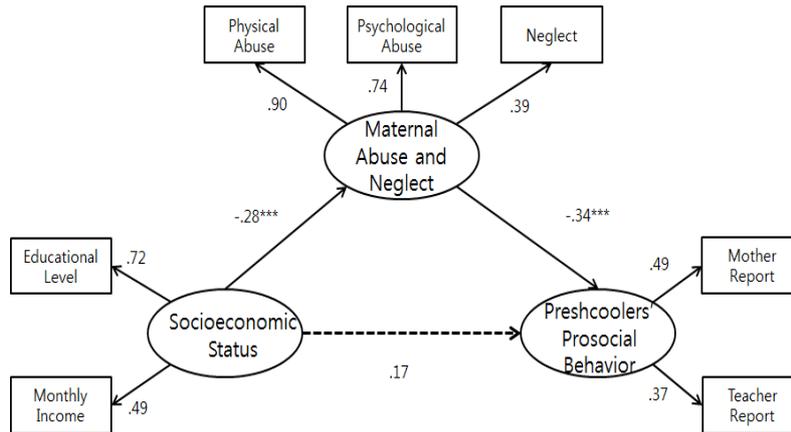
다음으로, 첫 번째 모형에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이 추가된 두 번째 모형에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이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보고된 유아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34.83(df = 22)$ ,  $\chi^2/df = 1.58$ , CFI = .98, NFI = .96, TLI = .96, RMSEA = .03(90% 신뢰도 = .01, .05)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비표준화 경로계수는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매개변인이 포함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아의 친사회성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을 통해 유아의 친사회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8, p < .001$ ),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유아의 친사회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beta = -.34, p < .001$ ).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유아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 및 방임을 더 많이 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 자신과 교사에 의해서 친사회성을 덜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4.02, p < .001$ ),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0, p < .001$ ).

Table 3. Standardized and Unstandardized Loadings for the Mediation Model

Path loadings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i>b</i>	$\beta$	<i>C. R</i>
Socioeconomic status → Prosocial behavior	.00	.17	1.84
Maternal abuse and neglect → Prosocial behavior	-.27	-.34	-3.99***
Socioeconomic status → Maternal abuse and neglect	-.00	-.28	-4.71***

Note. Effects of gender and birth order on a mediator and an outcome variable were not included.  
 \*\*\**p* < .001



Note. Effects of gender and birth order on a mediator and an outcome variable and measurement errors were not displayed. Factor loadings from latent variables to measured variables are all significant at *p* < .001.  
 \*\*\**p* < .001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효과가 완전매개인지 혹은 부분매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여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완전매개모형( $\chi^2 = 37.69, df = 23$ )과 부분매개모형( $\chi^2 = 34.83, df = 22$ ) 간의  $\chi^2$  차이값은 2.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모형을 지지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유아의 친사회성 분산의 18%를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

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구조적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탐색하였다. 각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중 하나인 공격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아, 구조모형에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중 다른 하나인 친사회성만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친사회성의 경우 구조모형의 결과를, 공격성의 경우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였다.

먼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였다. 이는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확인되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개별적 관계는 대부분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월 총수입이 높은 가정의 유아는 더 친사회적인 것으로 어머니와 교사 모두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자라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고(Lee & Han, 2003; Lee et al., 2004), 친사

회적이라는(Chung et al., 2009)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아의 발달결과에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발견된 결과,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은 양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인 압박이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등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국내의 연구결과(Kim, 2009)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해 더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 부모는 부정적 양육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유아의 부정적 발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과 같은 중재적 도움을 통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부모의 부정적 양육이 유아의 부정적 발달결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학대 및 방임을 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대 및 방임을 적게 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학대 및 방임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 선행 연구결과들(Kim, 2002; Goo, 2011)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월수입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학대 및 방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Kim & Kim, 2008; Yeo, 2010)도 가정의 월수입이 낮을수록 학대와 방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가정의 월수입과 어머니의 방임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정의 월수입과 어머니의 신체적·심리적 학대 간의 상관계수들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나 방임이 적게 일어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Park, 2005; Kim & Kim, 2008)을 지지한다.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유아는 친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에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의 특성을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이러한 아동들이 위축되어 있고 수동적이며, 발달적 지연을 보이고, 또래와의 놀이 시 친사회적 상호작용을 덜 보였다고 결론지은 최근의 연구결과(Naughton et al., 2011)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유아기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긍정적인 또래경험이 가정에서의

불우한 경험을 완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Chyung, 2004)를 볼 때, 학대 및 방임 가정의 아이들은 이러한 기회마저 얻기 힘들어 이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와는 달리,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아의 공격성과는 관련이 없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유아의 공격적 성향을 더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들(Shaw et al., 2003; Duncan & Brooks-Gunn, 2000; Keenan & Wakschlag, 2000)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입증한 최근의 메타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Letourneau et al., 2011). 국외의 연구결과들은 달리 국내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많지 않으나, 관련 연구들은 국외의 경우와 달리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Lee & Kim, 2011)가 있는 반면, 저소득층과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공격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들(이숙영·홍신아, 2003; Chung et al., 2009)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국외의 경우와 달리 국내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비일관성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아의 공격성이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이나 친사회성과 같은 다른 연구변인들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유의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서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연구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주제로 한 후속연구가 지속됨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의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방임 역시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높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는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공격성과 가장 큰 관련을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체적 학대와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일관적으로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결과들(Marly et al., 2001; Stouthamer-Loeber et al., 2001)과 일치한다. 이는 또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이 공격성을 더 나타낸다는 연구결과(Naughton et al., 2011)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학대나 방임의 경험이 공격적 아이로 성장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을 통해 유아의 낮은 친사회성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 일종의 통제변인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많지만,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그 자체로서 유아의 친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 관계의 매개변인으로서 어머니 학대 및 방임의 부정적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유아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자녀양육방식의 기초가 확립되는 이 시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정적 양육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긍정적 양육을 훈련하고자 하는 실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Rigby & Slee, 1993; Simons, Paternite, & Shore, 2001)과 긍정적 또래관계의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여겨지는 친사회성의 특성(Crick, 1996; Seban, 2003; Sim, 2005)에 기초한 건대, 또래관계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이 시기 자녀를 둔 가정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역할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의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그 주체자인 어머니를 통해 이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이러한 조사방법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발휘하여 부정적 응답을 축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과 달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 자기보고가 어려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 학대와 방임 요인의 경우 내적일치도가 각각 .62와 .63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1/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385.80만 원임을 감안할 때(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월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는 100~250만원 미만에 속하는 대상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부모의 우울이나 부부갈등과 같은 요인들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Conger et al., 1994),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매개변인을 고려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보다 다양한 경로를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에게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힌 국외의 연구들(Conger et al., 1994; Knutson et al., 2004)을 기초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과 같은 양육행동이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행동을 주제로 한 최근 연구들이 동일한 행동을 여러 평가자가 측정하도록 하는 경향에 맞춰, 본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성과 공격성을 어머니보고와 교사보고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다룬 국내연구들이 주로 학령기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생후 초기에 속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도 그 의의가 있다.

## REFERENCE

- 이숙영 · 홍신아(2003).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학대경험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학생상담연구**, 1, 83-100.
- Belsky, J., Bell, B., Bradley, R. H., Stallard, N., & Stewart-Brown, S. L.(2007). Socioeconomic risk, parenting during the preschool years and child health age 6 year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7(5), 508-513.
- Berger, L. M.(2004). Income, family structure, and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725-748.
- Berger, L. M.(2005).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9, 107-133.
- Berger, L. M., & Brooks-Gunn, J.(2005).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knowledge and behaviors, and perceived maltreatment of young low-birth-weight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79(2), 237-267.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hen, X., Liu, M., Rubin, K. H., Cen, G., Gao, X., & Li, D.(2002). Sociability and prosocial orientation as predictors of youth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in a Chinese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128-136.
- Choi, J. M., & Woo, H. J.(2002).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maternal variables on the verbal abus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5), 225-235.
- Chung, I. J.(2008).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abuse to peer reje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4), 79-95.
- Chung, M. R., Kwon, J. Y., & Lee, M. J.(2009). The comparison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ocial competence, and parental self-efficacy by their family incom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6), 359-378.
- Chyung, Y. J.(2004). Children's peer experiences, familial suppor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15.
- Conger, R. D., Ge, X., Elder, Jr. G. H., Lorenz, F. O., & Simons, R. L.(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Doh, H. S., Kim, M. J., Park, B. K., & Hwang, Y. E. (2005). The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to children's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185-195.
- Duncan, G. J., & Brooks-Gunn, J.(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Eisenberg, N., & Mussen, P. H.(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ckson, M. F., & Egeland, B.(2002). Child neglect. In J. E. B. Myers, L. Berliner, J. Briere, C. T. Hendrix, C. Jenny, & T. A. Reid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nd ed., pp. 3-20). Thousand Oaks, CA: Sage.
- Gelles, R. J.(1992). Poverty and violence toward childre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 258-274.
- Goo, J. M.(2011). *Influence of stress of employed housewife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Ha, E. K., & Park, C. M.(2002). A study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its related variables: Based on a primary school in Daegu.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8*(4), 351-362.
- Haskett, M. E.(1990).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21*, 109-118.
- Hong, S. H.(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ong, Y. S.(2010). The influence of their parent's abuse on children's depression and the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0*, 225-244.
- Jo, E. J.(2012). A study on finding protective factors which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rom parents' abuse: Comparison between abus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Forum for Youth Culture, 29*, 138-164.
- Keenan, K., & Wakschlag, L. S.(2000). More than the terrible twos: The nature and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in clinic-referred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33-46.
- Kim, J. I.(2009). The impact of economic pressure on school life and problem behavior of poor children: Focusing on family risk variables and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parental rol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8*, 7-43.
- Kim, K. H.(2006).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physical child abus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5*, 53-74.
- Kim, K. H., & Kim, Y. S.(2008). Process analysis of poverty influencing on child abuse and neglect: Analyzing mediation effect of parent's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 Association*, 17(5), 847-859.
- Kim, S. H.(2002). *The effects of the child-rear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on their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Knutson, J. F., DeGarmo, D. S., & Reid, J. B.(2004). Social disadvantage and neglectful parenting as precursors to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aggressive child behavior: Testing a theoretical model. *Aggressive Behavior*, 30, 187-205.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1). *Annual report o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won, J. Y.(1991).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in the emotion and behaviors: Focused on children under custo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Y.(1996). *Peer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of abus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Y., & Han, J. S.(2003). Child abuse and child, par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2), 63-78.
- Lee, K. H., & Kim, J. I.(2011). The effects of parental poverty and mother-child play interaction on child physical aggression and hyperactiv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4), 209-219.
- Lee, K. S., Kim, S. H., & Kim, M. J.(2010). The Influence of a child's gender and age and family socio-economic factors on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a child's social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4), 187-212.
- Lee, K. S., Shin, Y. J., Chun, Y. J., & Park, J. A.(2004).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 problem among young childre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53-73.
- Lee, Y. M.(2006). *Aggression reduction program: Targeted 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Low-Wage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tourneau, N. L., Duffet-Leger, L., Levac, L., Watson, B., & Young-Morris, C. (2011).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published online before print.
- Manly, J. T., Kim, J. E., Rogosch, F. A., & Cicchetti, D.(2001). Dimensions of child maltreat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Contributions of developmental timing and subtype.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3, 759-782.
- Marsh, H. W., & Hau, K. T.(1996). Assessing goodness of fit: Is parsimony always desirable?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4, 364-390.
- Meehan, B. T., Hughes, J. N., & Cavell, T. A.(2003).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s compensatory resources for aggressiv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 1145-1157.
- Naughton, A., Mann, M., Tempest, V., Kemp, A. M., & Maguire, S.(2011). Can we identify the neglected/emotional abused preschool child?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6(1), 92.
- Noh, C. Y., & Park, S. Y.(1992). A study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family vio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violent behavior and child's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0(4), 219-230.
- Olson, S. L., & Hoza, B.(1993). Preschool development antecedents of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beginning school.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60-67.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Park, J. H.(2002). *Relationships of home- and daycare- environments with social competence among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 Park, M. K.(2005). *A study on risk factors by child neglect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Rigby, K., & Slee, P. T.(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Seban, A. M.(2003). The friendship features of preschool children: Links with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2(2), 249-268.
- Shaw, D. S., Winslow, E. B., & Flanagan, C.(2003).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family relations on young children's adjust-

- ment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742-755.
- Shin, H. Y., & Choi, H. R.(2003).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by parents, child's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2), 295-307.
- Sim, H. O.(200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aggression, prosocial behavior and peer relatio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2), 121-134.
- Simons, K. J., Paternite, C. E., & Shore, C.(2001).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2), 182-203.
- Son, S. H., & Rhee, E. H.(2004). The relations of peer competence to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67-177.
- Stouthamer-Loeber, M., Loeber, R., Homish, D. L., & Wei, E.(2001). Maltreatment of boys and the development of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r.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3, 941-955.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Walker, H. M., O'Neill, R., Shinn, M., Ramsey, B., Patterson, G. R., Reid, J., & Capaldi, D.(1986). *Longitudinal assessment and long term follow-up of antisocial behavior in fourth grade boys: Rationale, methodology, measures, and result*.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Oregon.
- Yeo, J. J.(2010).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networks on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2, 99-127.
- Yoo, J. W.(2006). *The effects of abuse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Yoo, J. W., & Kim, H. M.(2007).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1(3), 361-387.

접수일 : 2012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2년 08월 0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8월 29일